the first phone call

천국에서 온 첫 번째 전화

from heaven

미치 앨봄 장편소설

윤정숙 옮김

arte

늘 그리운 목소리의 주인공,
전화의 거장 데비를 위해

∞ 사랑하는 한국 독자들에게 ∞

저는 책상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는 전화가 놓여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전화를 바라보면서 언제 벨이 울릴지, 누가 전화할지 생각해봅니다. 신비한 물건인 전화는 우리 손바닥에 딱 맞는, 세계를 향한 신호등입니다. 처음 알렉산더 벨의 발명품을 목격한 사람은 진짜인지 의심했습니다. 당시 누가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과 선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상상했겠습니까?

전화와 함께 도래한 모든 마법적인 순간에도 불구하고 전화는 새로운 슬픔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전화로 듣지 못하는 목소리들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었던 소통에 굶주려 합니다. 우리는 "안녕, 나야"라는 문장을 갈망합니다.

그런 열망이 이 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의 연로하신 어머니는 대단한 이야기꾼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뇌졸중으로 심신이 쇠약해지셨습니다. 뇌졸중은 어머니에게서 이야기를 빼앗아갔습니다. 매일 내 삶의 일부가 되어주던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는 사라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직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에 계십니다. 덕분에 어머니를 안고 어루만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영원히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관계에서 커다란 부분이 떨

어져나갔습니다.

멋진 대화만큼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작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위대한 책들의 미덕을, 책을 읽는 혼자만의 즐거움을 더 크게 칭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만의 독서 시간을 즐깁니다. 오직 저와 책뿐이죠. 하지만 일단 위대한 책을 읽고 나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나요?

생각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합니다. 어머니와의 새로운 관계에서 제가 가장 그리운 것도 바로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칭찬, 회고담, 다정한 잔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웃음소리.

이 책은 콜드워터라는 허구의 장소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천국의 전화를 받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장 감동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잊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잊습니다.

『천국에서 온 첫 번째 전화』가 미국에서 출간된 이후 감동을 받은 수많은 독자들은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함께 웃으며 그 소리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반응이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고를 덧붙여야겠군요.

우리는 전보다 더 연결이 잘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자는 70억 명에 이릅니다. 사실상 모든 인류가 휴대전화를 한 대씩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지고 가난한 곳에서도 사람들이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렉산더 벨의 전화선은 이제 문자로 서로를 연결해주는 데까지 발전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 면에서 이전보다 더 연결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갑니다. 우리는 직접 찾아가는 대신 컴퓨터를 이용합니다. 전화 대신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 대신 문자를 날립니다. 말이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말보다 다른 수단을 선택하죠. 말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기술 덕분에 할 일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인간의 유대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책과, 이 책에서 벌어지는 기적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통과 아이디어와 활력과 성취가 가득한 나라더군요. 젊은 사람들이 학업에 몰두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에도. 내 조국인

미국을 능가하는, 적어도 미국에 필적하는 기술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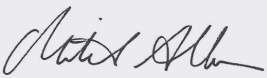
제발 조심하십시오. 기계가 여러분의 인간미를 대신하게 하지 마세요. 더 빠르고 더 쉬운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특별한 것을 대신하게 하지 마세요. 운전하거나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지름길이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위로가 되어 매일 어디서나 벌어지는 작은 기적에 마음을 열기 바랍니다. 그런 기적들은 때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죠. 이 책의 독자들에게 저는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진짜일 수도 있을까요? 음. 모르겠군요. 하지만 최초의 전화가 모두에게 불신을 받던 시대를 생각해보세요.

한국 독자 여러분, 오랫동안 엄청난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다시 방문하고 싶군요.

2014년 6월 15일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미치 앨봄



contents

사랑하는 한국 독자들에게 • 6

금요일에 걸려온 전화 그 일이 벌어진 주 • 13

꿈꿨던 것보다 좋은 곳 두 번째 주 • 19

콜드워터의 기적 세 번째 주 • 27

소문과 증언 네 번째 주 • 38

기쁨도 슬픔도 함께 다섯 번째 주 • 48

의심 여섯 번째 주 • 59

끝이 끝이 아니야 나흘 후 • 65

사람들의 시선 일곱 번째 주 • 84

모두에게 말해 사흘 후 • 87

혼란, 그리고 상실감 여덟 번째 주 • 107

한자리에 모인 이유 아홉 번째 주 • 124

지금 무슨 일이 나흘 후 • 132

마지막 비행 열 번째 주 • 136

아빠는 거기 없었어 열한 번째 주 • 167

이 삶 이후의 삶 다음 날 • 173

장례식장의 대화록 열두 번째 주 • 187

목소리 이틀 후 • 206

추수감사절 열세 번째 주 • 212

대립 열네 번째 주 • 223

커져가는 욕망 열다섯 번째 주 • 237

불신과 의혹 열여섯 번째 주 • 253

드러내지 못한 진실 방송하는 날 • 299

천국이 없다고 말하지 마 자정 이후 • 358

다시, 미궁 속으로 다음 날 • 365

발신자 불명의 전화 이틀 후 • 367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두 달 후 • 378

감사의 말 • 381

옮긴이의 말 • 384

금요일에 걸려온 전화

그 일이 벌어진 주

세상 사람들이 천국에서 걸려온 첫 번째 전화를 받던 날, 테스 래퍼티는 차 상자의 비닐 포장을 뜯고 있었다.

따르릉!

그녀는 전화벨 소리를 무시하고 비닐에 손톱을 찔러 넣었다.

따르릉!

그러고는 상자 옆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집게손가락으로 긁었다.

따르릉!

그녀는 마침내 비닐을 벗겨내어 돌돌 뭉쳤다. 벨이 한 번 더 울리기 전에 받지 않으면 자동 응답기가 돌아갈 것이다.

따르릉!

"여보세요?"

너무 늦었다.

“이런.”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때 부엌 조리대에서 기계가 딸깍이는 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테스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바로 전화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작게 삐 소리가 난 뒤 잡음이 들렸다. 그리고.

“엄마야……. 네게 할 말이 있는데.”

테스는 숨을 멈추었다. 수화기가 그녀의 손가락에서 빠져나갔다.

그녀의 어머니는 4년 전에 죽었다.

따르릉!

소란스러운 경찰서에서 두 번째 전화가 울렸다. 세 명의 경찰관은 2만 8,000달러짜리 복권에 당첨된 점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만일 그런 행운을 얻는다면 무엇을 할지 떠들고 있었다.

“밀린 카드 값이나 갚으라고.”

“너라면 그러겠어?”

“보트를 사야지.”

“카드 값이나 갚아.”

“싫어.”

“보트!”

따르릉!

경찰서장인 잭 셀러스가 자신의 작은 사무실 쪽으로 뒷걸음질하며 말했다. “카드 값을 갚으면 새로운 청구서들만 쌓일 걸.” 그가 전화기로 손을 뻗는 동안에도 경찰관들은 계속 말씨름 중이었다.

“콜드워터 경찰서의 셀러스입니다.”

잡음. 곧이어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로비예요."

순간 잭의 귀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야?"

"난 행복해요, 아빠.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잭은 배가 당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머리를 짧게 깎고 수염을 말끔하게 밀고 세 번째 파병을 위해 공항 보안대를 지나던 모습.

파병되던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너일 리가 없어." 잭이 중얼거렸다.

∞

지이잉!

워런 목사가 턱에 흐르는 침을 닦아냈다. 그는 '하비스트 오브 호프 침례교회'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참이었다.

지이잉!

"나가요."

그는 허우적거리며 일어섰다. 여든두 살인 그는 귀가 점점 어두워져서 사무실 밖에 벨을 설치해두었다.

지이잉!

"목사님, 캐서린 옐린이에요. 어서요, 제발!"

그는 다리를 절름거리며 문간으로 가 문을 열었다.

"잘 지냈니, 캐……."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를 지나쳤다. 집에서 급하게 달려 나온 듯

코트의 단추는 반만 잠겨 있었고 빨간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가 초조하게 일어섰다가 다시 소파에 앉았다.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아니, 친애하는……."

"다이앤 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누가 전화했다고?"

"다이앤 언니요."

워런은 머리가 아파왔다.

"죽은 언니가 전화했다고?"

"오늘 아침에요.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그녀는 핸드백을 잡더니 울기 시작했다. 워런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해야 할지 고민했다.

"저더러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캐서린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는 평안하다고 했어요."

"꿈이군, 그렇지?"

"아뇨!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전 언니와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가 모두 닦아내지 못할 만큼 빠르게 눈물이 두 뺨을 타고 떨어졌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지, 친애하는 캐서……."

"그래요. 하지만……."

"너는 다이앤을 그리워했어……."

"네……."

"그리고 상심하고 있고."

"아니에요, 목사님! 언니는 천국에 있다고 했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녀가 기쁨이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워런이 그녀의 얼굴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미소였다.

"이제 그 무엇도 무섭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

따르릉.

경고등이 울리고 묵직한 감옥 문이 열렸다. 설리번이라는 이름의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한 번에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다—석방되어 들뜬 것이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그를 잡아당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앞으로. 앞으로. 그는 신발 끝만 내려다보았다. 자갈을 밟는, 가벼운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오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줄스.

그의 아들.

작은 두 팔이 그의 다리를 감쌌고 그의 양손이 소년의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속으로 파고들었다. 모두가 포옹을 하는 동안 그의 부모는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었다—어머니는 감청색 윈드브레이커를 입었고 아버지는 연갈색 슈트를 입었다. 잿빛의 추운 날씨였고 비가 내린 거리는 번들거렸다. 그의 아내만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부재는 이미 익숙해진 것 같았다.

설리번은 뭔가 심오한 말을 하고 싶었지만 고작 이렇게 속삭일 뿐이었다.

"가요."

잠시 뒤 그들의 차는 길 아래로 사라졌다.

천국에서 첫 번째 전화가 걸려온 날이었다.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당신이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다.